日 키옥시아 1199억 담았다… AI 반도체에 꽂힌 개미들

3배 인버스·빚투 등 극단 베팅
美 AI 반도체주 고평가 부담 속에
가격 매력 커진 일본 주 관심 확산

#.30대 직장인 A씨는 요즘 스마트폰 증권 앱으로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시장을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다. '인공지능(AI)기업의 수익성이 확인됐다'라는 소식을 보지 못하고 최근 '디렉시온 반도체 3배 인버스 ETF(SOXS)'를 사면서다. 더욱이 한 번에 큰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3배 레버리지 상품에 3000만원을 투자했다가 석 달 새 평가손실을 보고 있다. A씨는 "반도체 주가 많이 올라 이제는 떨어질 때도 됐을 거라 생각했다"라며 "시장보다 앞서 판단해 3배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 게 후회가 된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30대 직장인 B씨는 지난달 삼성전자와 일본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기업 키옥시아에 1억원을 투자했다. 반도체 업종 주가가 더 오를 것이란 판단에 과감히 '상승'에 베팅한 것이다. 예상은 적중해 현재 계좌엔 플러스 350%가 찍혀있다. B씨는 "분산투자하면서 반도체주식을 더 사들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미들의 '픽(Pick)' 업종에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된다. 여전히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하락에 베팅하는 개미들이 있는 반면, '지금이 가장 쌀 때'라고 보고 빚투에 나서는 개미들이 있다.

ChatGPT로 생성한 '글로벌 중요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 관련 이미지.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일학개미(일본 증시에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일본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기업 키옥시아를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약 1199억원 순매수했다. 순매수 2위 종목이었던 후지쿠라(427억원) 대비 약 3배의 금액이 몰린 것이다. 키옥시아가 19.22% 급등했던 지난 7일에도 약 45억원 순매수하며 가장 많이 담았다. 키옥시아는 AI 데이터센터 증설로 인한 직접적인 수혜주로 꼽힌다. 데이터 저장장치 수요 증가와 낸드플래시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가 AI 시대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도 관련 종목으로 쏠리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도 지난 3월에는 삼성전자(7조원)와 SK하이닉스(16조8100억원)를 가장 많이 순매수한 반면, 4월에는 가장 많이 순매도하면서 반도체주 중심의 공격적인 매매 흐름을 보인 바 있다. 이달에도 순매수 상위 1위부터 3위까지 SK하이닉스(9464억원), 삼성전자우(8595억원), SK스퀘어(6514억원) 등이 차지하고 있다.

개미들의 상승과 하락 베팅 모두 반도체로 향한다. 미국 증시에서는 지난달부터 8일까지 '디렉시온 반도체 3배 인버스 ETF(SOXS)'(4억4978만달러)를 두 번째로 많이 순매수하며 반도체 업종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베팅하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1위 종목은 반도체 기업인 인텔(4억5130만달러)이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주요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흐름이다.

국제금융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미국과 중국을 떠나 유럽과 일본 시장으로 향했다. 주력 시장인 미국 주식을 약 4억7000만달러 팔아치우며 10개월 만에 순매도로 전환했고, 홍콩과 중국 주식도 각각 3000만달러씩 순매도했다. 반면, 유럽 시장에서는 2000만달러를 순매수하며 4개월 연속 순매수세를, 일본 증시에서는 700만달러를 사들이며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순매수 전환했다.

미국 증시 내에서 AI 반도체 관련 종목이 급등한 이후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이 부각된 일본 반도체주로 관심이 확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AI 투자 흐름 자체는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반도체와 AI 공급망 내에서도 투자처를 가려 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신술위 국제금융센터 부전문위원은 "최근 미국 증시 상승세에도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 등이 순매도 1위를 기록하는 등 차익을 실현했다"며 "AI 공급망 내 클라우드·스토리지 등 매출 가시성이 높은 부문과 공급망 병목 구간에 선별적으로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AI 부문에서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코스피가 7000선을 넘어서면서 거액을 굴리는 '큰손' 개미들의 주식시장 참여가 급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1억원 이상 대량 주문 건수는 총 119만315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월별 기준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직전 역대 최대치는 지난 2021년 1월 기록한 115만3301건으로, 약 5년 3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전달(3월·102만1744건) 대비로는 16.8% 늘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국내 주식형 ETF 순자산 200조 돌파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 비중 3.47%
국내 주식 수요, 해외 주식 역전

국내 주식형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200조원을 넘어서며 증시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유가증권시장 비중(시가총액)도 3.5%달한다. 개인의 여윳돈뿐 아니라 퇴직연금까지 ETF로 유입되면서, ETF가 시장 수급과 변동성에 미치는 파급력 또한 커지고 있다.

1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국내 전체 ETF의 순자산은 456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5일 사상 처음 400조원을 돌파한 이후 한 달도 안 돼 50조원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내 상장된 기업들에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 ETF의 순자산은 212조원으로, 200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ETF는 국내 주식형, 해외 주식형, 국내 채권형, 국내 혼합형 등으로 구분되는데 전체 ETF 1099개 종목 가운데 현재 국내 주식형은 413개에 달한다.

국내 주식형 ETF 순자산은 2024년 말까지만 해도 40조원이었으나, 지난해 93조원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올해에는 4개월여 만에 두 배 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코스피 시총 6138조원 대비 비중도 3.47%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말 2.68%에서 0.81%포인트(p) 더 불어난 수치다.

국내 주식형 ETF 순자산의 비중은 2023년 말(1.99%)에는 2%에도 미치지 못했고, 2024년 12월에는 2.08%에 불과했다.

전체 ETF 가운데 국내 주식형 ETF 비중은 약 절반(46.6%)을 차지했다. 이 비중은 전체 ETF 순자산이 70조원 수준이었던 2021년 말에는 55.3%였으나, 이후 미 증시 상승으로 해외 주식형 ETF가 크게 늘어나면서 2024년 말에는 24.3%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같은 국내 주식형 ETF 비중 증가는 ETF가 최근 수년간 지속된 해외 주식형 '쏠림'에서 국내 주식형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고, 동시에 실제 ETF가 '불장'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국내 증시 수익률이 주요국 증시 수익률을 크게 웃돌면서 ETF 시장 내 국내 주식 수요가 해외 주식을 역전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내 상장 ETF 시장의 매수 1~3위 종목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나스닥 등 미국 증시를 추종하는 ETF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국내 주식형 ETF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미래에셋證, 美 DTCC 토큰화 협의체 합류

JP모건 등 글로벌 금융사와 협업

미래에셋증권이 미국 월가 핵심 금융사들과 함께 미래 증권시장으로 꼽히는 토큰화 인프라 구축 논의에 이름을 올렸다.

미래에셋증권 미국법인이 미국 최대 증권예탁결제기관인 Depository Trust & Clearing Corporation(DTCC)가 주도하는 '토큰화 워킹그룹(Tokenization Working Group)'에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DTCC'는 미국 자본시장의 핵심 청산·결제 및 예탁 인프라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글로벌 금융회사들과 함께 토큰화(Tokenization) 기반 증권시장 인프라 구축 및 표준화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번 워킹그룹에는 JP모건 체이스(JPMorgan Chase),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블랙록(BlackRock), 시티그룹(Citigroup), UBS,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등 글로벌 금융기관과 디지털자산 시장 핵심 참여자들이 포함된다. /허정윤 기자

KCGI 목표전환형펀드, 목표수익 조기 달성

누적 수익률 7.23%

KCGI자산운용은 'KCGI피델리티미국AI테크 목표전환형펀드'가 지난 6일 기준 기준가 1072.27원을 기록해 누적 수익률 7.23%를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지난 2월 13일 설정됐다.

목표전환형 펀드는 사전에 정한 수익률에 도달하면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채권 중심의 안정형 자산으로 운용 방식을 바꾸는 구조다. 이번 목표 달성에 따라 해당 펀드도 앞으로 국내 채권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게 된다.

이 펀드는 미국 AI 테크 주식에 50% 미만, 국내 채권에 50% 이상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됐다. 성장성이 높은 미국 기술주에 투자하면서도 절반 이상을 채권에 배분해 변동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미국 주식은 글로벌 자산운용사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Fidelity Investments)의 리서치 역량을 활용해 AI 산업의 구조적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을 선별했다.

운용 기간 해외 주식 부문 수익률은 15.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나스닥 상승률 12.3%와 S&P 500 상승률 6.5%를 모두 웃돌았다. 회사 측은 종목 선택 효과가 전체 펀드의 조기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KCGI자산운용은 AI 관련 상품군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한국과 미국 AI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개방형 상품 'KCGI 피델리티한미AI테크[주식]' 펀드를 출시했다. 국내 주식은 KCGI자산운용이 직접 운용하고, 미국 주식은 피델리티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허정윤 기자

신한자산운용이 어버이날을 맞이해 마포구 용강노인복지관과 함께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나눔 봉사활동 '사랑해 효(孝) 함께해 효(孝)'를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자산운용

신한운용, 지역 어르신 위한 효 봉사활동

식사 지원하고 카네이션 선물

신한자산운용은 어버이날을 맞아 마포구 용강노인복지관과 함께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나눔 봉사활동 '사랑해 효(孝) 함께해 효(孝)'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사회 어르신들께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전하고,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나눔 실천을 통해 상생과 배려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독거 어르신 및 취약계층 어르신 200명이 함께했으며, 신한자산운용 임직원 10여명이 참여했다. 임직원들은 용강노인복지관 경로식당에서 식사 지원 봉사를 진행하며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신하은 기자